

## ‘원칙’ 강조한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 “체육,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흔들리는 체육계 겨냥... “원칙 깨지니 정상화 안 돼”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체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원칙을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출입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취임 소감, 역점 사업 등을 밝혔다.

하 이사장은 1984 LA 올림픽 유도 남자 95kg급에서 한국 유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에 전심했다.

현역 은퇴 후 후학 양성을 위해 모교인 동아대 교수로 부임했고,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원과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년 8월에는 체육공단 상임감사로 부임해 1년 4개월 동안 재직했고, 지난 20일 제14대 체육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 이사장은 “이런 자리에 오르는 기회가 언젠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반듯한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많이 긴장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고 장애인 체

육 또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이 틀만 잡고 임기를 마쳐도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선수 시절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었다. 실패해도 다시 큰 힘을 쏟을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기초체력이 있었고, 기초가 튼튼했다. 누군가 옆에서 흔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단을 만드는 데 3년을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하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철학·가치가 재정립된 정통한 조직,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중심 조직, 혁신으로 스포츠 복지 수준 업그레이드, 경쟁력 있는 엘리트 체육 진흥 정책 실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환경 구축, 스포츠산업을 책임지는 체육공단, 스포츠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을 묻는 말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원칙이 있는 틀을 만들 것이다. 새롭게 진행되는 투표권 공유회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답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출입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체육공단 제공>

했다.

이날 하 이사장은 흔들리는 체육계 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하 이사장이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체육계의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행정 절차 등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수장인 이기홍 회장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 혐의에 휩싸

였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체육회와 시설관리 용역 계약 업체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 중이다.

하 이사장은 “우리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참 잘했는데 체육계가 어찌다 이렇게 됐나 싶다. 원칙이 깨지니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며 “운동선수들의 생각, 사고력, 기량은 21

세기인데 가맹단체의 사고나 행정은 40년 전에 내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와 똑같고, 변한 것이 없다. 지방 체육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를 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의존해 조직화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우리가 추구하는 스포츠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스포츠의 가치가 이것 밖에 안됐다. 스스로 자책하고 고민할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월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가 열린다. 체육계에 혁신을 좌지우지할 이번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한다.

이기홍 회장 또한 지난 26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하 이사장은 “차기 체육회장은 체육을 경험했고, 체육의 가치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뉴시스



전주대,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대항부 정상 올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씨름부가 위더스계약 '2025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대항부 정상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임종길 감독이 이끄는 전주대 씨름부는 지난 26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4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대우대를 점전 끝에 4-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전주대는 9년 만에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대항부 최강단의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먼저, 첫 번째 주자 나선 강현우 선수가 쉽게 첫판을 내줬으나, 두 번째로 나선 최석현 선수가 배지기와 뒤집기 되치기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1-1로 원점으로 돌렸다. 세 번째 홍지원 선수는 밀어치기와 배지기로 역전하며 팀에 귀중한 한 점을 더했다. 이후 박정훈 선수가 유희승 선수가 연달아 패하며 팀은 2-3으로 끌려갔다. 한편, 여섯 번째 주자 이호현 선수가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나선 장사급 차승민은 첫판 경고패를 극복하고 잡치기로 연속 두 점을 따내며 점전 끝에 4-3으로 역전승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재훈 기자

## “끊임없는 도전, 자람이자 희망”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지난 26일 장수군 본볼구장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체육인과 관계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표창은 전문선수 이애랑, 생활체육선수 안용운, 우수지도자 조강원, 우수단체 장수군장애인보치아협회에 수여됐고, 감사패는 전주 차플라트 치과의원 이차기원장에게 전해졌다.

또한 장수군 정신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정신건강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장수사랑복지재단 안민우 대표이사과 장애인체육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전라일보 임정규 기자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최훈식 군수는 “여러 대회에 참가하



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여러분은 가족에게는 자람이자, 군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가 올 한 해 동안의 대회들을 돌아보고, 장애인체육회가 거둔 성과를 함께 자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무주 이장님들을 태권도원에 모십니다”

태권도진흥재단,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상 ‘마을 구심체 초청행사’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무주군 읍·면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태권도원에 초청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을 소개하는 ‘무주 마을 구심체 초청행사’를 지난 27일과 28일 가졌다.

27일은 무주읍과 적상면·부남면, 28일에는 무풍면과 설천면·안성면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지역발전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천동관광특구연합회와 상인연합회, 안성발전학재단, 도치·안기마을 개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초청행사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신성일 사무총장의 환영 인사와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소개를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과 태권전·명인관 견학, 오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7일, 태권도원을 찾은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 유상근 씨는 “오늘 태권도진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군 읍·면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태권도원에 초청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을 소개하는 ‘무주 마을 구심체 초청행사’를 지난 27일과 28일 가졌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흥재단과 태권도원 소개를 비롯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태권도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신성일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임명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귀한 분들이 이장님 등 지역 손님

들이어서 더욱 뜻깊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통해 지역 발전과 무주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달 7~11일 김제서

전국초등 태권도대회

한국 태권도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태권도대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 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최권열)이 주최·주관하는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대회로 3,500여명의 태권도 꿈나무들과 1,000여명의 지도자 및 학부모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은 우수선수 경기력향상금과 지도자 격려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의 역대 최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12월 11~28일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이 김제를 찾아 동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작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연이어 올해에도 유치한 것으로 이는 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